

축협 닭가공처리장 과잉중복설비투자 재고되어야

- 위탁도계 위주 도계장 없으면 일반 육계농가 판로막혀 -

축협중앙회가 음성에 건축중인 신규 닭고기 가공공장이 IMF 구제금융시대 과잉중복설비 투자 우려에(본지 9월호, 제39호 기사 참조) 대하여 축협중앙회장은 계육가공공장 건립 사업이 수년전부터 준비되어져 건설공정 80% 정도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공장 준공을 통해 국내 닭고기 공급의 위생도 향상, 계육가공 제품 개발, 냉장닭고기 해외수출 전진기지화 등의 이유로 육계산업의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해 계육업계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도모하여 상호 발전에 이바지할 뜻을 밝혔다.

계육산업협회 회원사 계열주체들은 지난 달 초 축협을 방문해 현재 국내 도계처리장시설이 IMF 환란 이후 급격한 소비감소

로 2.5배 이상을 상회하는 과잉설비로 축협의 대형 설비시설이 완공되면 불황 속의 계육산업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하고 신규건립을 신규수요가 창출돼 경제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하고 신규건립을 신규수요가 창출돼 경제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중단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국내 계육산업계중 도계시설은 일일 8시간 기준 2백5십만수(계열사 1백1십만수 추정)의 시설능력에 비해 일일 평균소비는 IMF 이후 80~90만 수 정도에 그치고 있어 도계장 부도가 속출하고 있으며 일부 도계장은 축협중앙회에서 부도후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매각이 어려운 실정이며, 지난 2~3년간 유명도가 높은 민간

계열업체 5~6곳이 경영이 어려워 매각되거나 부도로 업을 떠났으며, 일부 축협의 경우도 중앙회의 관리조함으로 전략하는 등 시설과잉으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육계사육자들은 축협중앙회가 참여해 건전한 육계계열화사업 추진으로 육계업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축협공장 정상가동을 기다리고 있으나 준공 후 시설과잉에 의한 위탁도계 위주의 영세도계장이 속속 문을 닫을 경우 계열사육농가가 아닌 일반 육계농가들은 닭판매, 도계작업, 유통 등에 더욱 심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돼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농림부, 실적우수 수출업체 자금 지원

농림부는 지난 9월 16일 산업자원부에서 수출증대 대책회의와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수출관련기관과 단체의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축산물 수출확대 대책회의에서 농축산물 수출업체 가운데 수출실적, 표창사례, 자금회수 실적 등을 종합평가해 우수한 업체에 대해 소요자금의 30%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토록하는 등 수출증대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밝혔다.

농림부는 또 농축산물 수출실적 18억달러를 올해도 유지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계획된 주요 수출국에 대한 농축산물 특별관측 행사를 당초의 2회에서 7회로 늘려 우리농축산물의 수요를 확대하

고 해외마케팅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폐사적이고 증체빠른 한방사료 개발

한방 재료를 이용, 과학적인 방법으로 만든 병아리 보조 사료가 처음으로 개발됐다. 부산의 한솔한방(대표 정인한·鄭仁漢)은 15일 "병아리의 폐사율을 줄이고 맛있는 닭고기 살과 계란을 생산할 수 있는 양계보조사료를 3년연구 끝에 최근 개발해 특허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솔한방중앙연구소가

개발하고 경상대 수의학과 김근섭(金坤燮)교수가 임상실험을 마친 보조사료의 상품명은 '황금통'. 황금통은 황금(黃芩)과 석창포(石菖蒲) 삼칠근(三七根) 등 14가지의 한방재료를 혼합해 만든 것. 임상실험을 한 결과 닭의 생육이 훨씬 빠르고 내병성(耐病性)이 커질 뿐 아니라 닭고기의 맛도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교수는 "항생제와 영양제를 먹일 필요가 없어 경비 절감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이미 일본과 중국에 1천1백만달러 어치의 수출계약을 맺었으며 국내 시판에도 들어갔다. 회사대표 정씨는 "고유의 한방을 산업화하는데 성공했다는 데서 의미를 가진다"며 "이 사료를 먹이면 순수익을 2배가량 올릴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동아)

● 사양정보 ●

육계의 백신 접종

육계사육 규모가 점점 커지고 질병이 만연해 지면서 닭 사육 농가에서 질병 예방을 위하여 1~4회 정도 닭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접종의 목적은 질병 예방에 있으나 백신을 접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감염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백신 접종에 대한 충분한 효과를 얻으려고 하면 닭 한 마리 한 마리에 정확한 백신을 접종하여야 사육 여건이 한 마리씩 접종하기에는 불가능하고 단 시간 내에 많은 마리수의 닭에 예방 접종을 실시하려고 음수접종과 분무접종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수 접종과 분무 접종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 음수접종

음수접종은 농가에서 가장 흔하게 실시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접종방법이 간편한 만큼 실패의 확률도 대단히 높다.

가. 음수접종 방법

- 접종 2시간(여름)~4시간 전에 물을 중단하여 닭이 목이 마르게 한다.
- 물을 중단하고 급수기 및 급수 탱크를 깨끗이 청소한다.
- 적정 음수량(2주령 1천수 당 물 10 L)에 백신을 희석하여 빠른 시간(2시간 이내)에 먹도록 하여야 한다.
- 급수용 물이 소독약이나 불순물이 들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생독 백신균을 보호하기 위하여 백신을 탈 물에 탈지분유 100g을 물 40L에 섞어서 사용한다.(탈지분유를 첨가하면 물에 잔류된 소독약 및 불순물에 백신이 죽는 것을 막아

준다.)

- 백신 접종은 기온이 낮은 아침에 실시한다.
- 접종이 완료 된 이후에는 백신병 등 백신기구를 깨끗이 청소한다.

나. 음수접종 시 유의사항

- 백신접종 48시간 이전부터 음수소독을 중지한다.
- 백신 접종 시 계사 내 급수 파이프(특히 호스를 이용하여 바닥으로 연결된 계사)가 완전히 비어 있어야 하지만 부득이 남은 물이 있을 경우에는 계사 끝에 설치된 밸브나 호스를 열어놓아 백신 희석액이 급수 파이프(호스)끝에서 나올 때 밸브를 잠금으로 계사 끝에 있는 닭들도 백신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일부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투약기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다.
- 모든 닭이 일시에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급수공간을 마련한다.
- 급수 파이프 또는 급수기가 급속으로 된 것은 백신균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급수기나 급수 파이프를 급속(스테인레스나 알루미늄 등)으로 된 급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농장에서는 급수기를 통하지 말고 접종하여야 한다.(플라스틱 제품은 비교적 안전함)
- 백신 접종 시 닭은 질병이 없어야 하고 사육 환경이 정상적이어야 한다.
- 백신에 삽입된 설명서를 충분히 읽어 본 후 백신을 사용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은 사용하지 않는다.

◎ 분무접종

분무 접종법은 작업이 간편하며 절수에 필요성이 없고 수질에 대한 영향도 받지 않아 수년전부터 1일령 초생추에서 접종을 하고 있으나 접종 방법에 따라 실패의 확률도 높은 접종법이다.

가. 분무접종 방법

- 분무접종 시 분무 입자의 크기는 50~100 μ m가 가장 효과적이며 자동화된 진동식 분무를 사용한다.
- 희석액은 멸균된 증류수를 사용하여 접종기구의 희석 배율에 따라 희석하여 약 4~6초간 분무하고, 일반농가에서 접종시는 1천수당 200cc 정도로 충분히 분무한다.
- 분무는 닭의 머리 위로부터 약 50cm 떨어진 곳에서 직접 분무한다.
- 분무접종은 이른 아침에 실시하고 분무접종 후 2시간 정도 안정을 취한 후 수송한다.
- 분무접종은 밀폐된 공간에서 실시하고 가능한 30분 정도 환기를 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 접종을 완료 이후에는 백신 접종기를 증류수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세척한다.

나. 분무접종 시 유의사항

- 분무접종은 백신 손실량이 많으므로 점안, 음수보다 농도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 분무입자가 지나치게 작을 시에는 분무 시 증발이 일어나 백신이 죽을 수 있고 입자가 너무 크면 병아리의 기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깃털만 적시게 된다.
- 분무접종은 타 방법에 비하여 스트레스가 많으므로 접종 후 최대한 스트레스를 줄인다.
- 음수접종에 시설이 여의치 않은 농장에서는 1주령 이후의 닭에도 분무접종이 음수접종에 비하여 효과가 높을 수도 있다.
- 접종 시 닭의 머리를 정확히 겨냥하여 분무한다.
- 접종 시 온풍기, 히터 및 환기 장치 정지하고 실시한다.

미국, 닭고기선택의 1등공신은 '맛'

미 농무부(USDA)에 따르면, 97년의 국민 1인당 닭고기 소비량(소매 중량 기준) 33.0kg으로 전년에 비해 2.8% 증가하였으며 20년 전과 비교하면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닭고기는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 다른 식육에 비해, 가격적인 면이나 영양적인 면에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식육으로 소비가 계속 향상되고 있으며, 지난 92년 이후 식육 소비중 수위를 차지하던 쇠고기를 앞질렀다. 그 후에도, 업계의 노력에 의해 소비자 요구에 일치하는 다양한 닭고기 제품이 제공되어 여전히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USDA는, 98년은 거의 전년 수

준과 같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99년에는 일인당 소비량이 34.5kg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한편, 이렇게 닭고기가 인기있는 이유를 찾기 위해, 미국의 민간 조사회사가 약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앙케이트 결과에 의하면, 닭고기를 선택한 이유로 가장 많은 답변은 바로 '맛'이었으며 그 외에 '건강', '다양성', '간편성' 등이 선택의 이유라고 답하였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었던 '저렴한 가격'은 7번째로 선택하는데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5~35세가

가장 많이 닭고기를 소비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은 가장 적게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응답자의 대부분은 앞으로도 꾸준히 닭고기를 소비할 것이라고 답해 닭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닭고기의 소비 패턴을 보면, 20년 전에는 소매가 대부분을 차지했었지만, 음식관련 서비스 부문의 발전,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매년 관련 시장이 확대되어 95년에는 소매부문을 상회하였다. 그 후로도 이런 경향은 계속 되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조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출하전 효모제 급여 살모넬라 억제효과

브로일러 출하 전에 효모제를 급여하면 출하 중에 살모넬라와 캠필로박터균으로 인한 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

여기서 사용한 효모제는 비병원성 효모인 사카로미세스속(*Saccharomyces boulardii*)으로 사료에 첨가해서 급여하면 장관내 미생물총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시험에서는 브로일러를 1일령에 살모넬라와 캠필로박터균으로 접종하고, 일부는 사료절실 전 60시간 동안 건조 효모제를 사료에 10% 첨가해서 급여하였다.

효모제를 급여하지 않은 브로일러에 비하여 효모제로 처리한

닭은 생계출하 수송 후 맹장내 살모넬라균수가 현저히 낮았다. 특히 효모제를 급여하지 않은 닭은 출하 전에 비하여 출하 후 살모넬라균수가 5배나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맹장내 캠필로박터균수는 효모제 급여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

생계 출하 전 절식과 수송에 따른 스트레스는 맹장의 살모넬라와 캠필로박터 감염수준을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도계장에서 세균 오염으로 인한 위험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 연구는 출하 전에 효모제를 급여함으로써 도계 전 세균 감염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Poultry Science)

베트남, 커피재배지 사육닭 경비절감

베트남의 커피재배지역에서 키운 닭들이 일반 농장에서 사육된 닭들보다 생산성이 높았다고 베트남 뉴스지에서 보도하였다.

이 기사에서는 커피재배지에서 커피잎을 먹고 키운 닭들이 일반 닭들보다 사육하는데 30~40%나 경비가 절감되었으며 고기의 질과 양도 우수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 육계 사육업자들이 커피잎을 구하려고 몰려드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우와~ 닭고기

맛있는건 못 참어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용 포스터 제작

본회는 9월 28일 닭고기 소비 촉진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닭고기 소비촉진 포스터 3만부를 제작하여 본회 회원사(준회원·특별회원 포함)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포스터는 닭고기 주소비층인 어린이를 주제로 맛있는 닭고기의 카피와 돼지고기, 쇠고기, 생선 등에 비해 영양적인 우수성을 표현해 닭고기 판매업소에 부착해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본회는 IMF 이후 어려운 사회 실정에 소비재 수요가 계속 줄고 있어 닭고기 소비시장의 회복과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건강식품 닭고기에 대한 소비

촉진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년들어 라디오 광고, 요리책 10만부 제작, 닭고기 우수성 리플렛 제작배포, 포스터 2종 6만부 제작 게시, 요리카드 2종 10만매 식품매장에 비치 등 광고 활동과 닭고기 부분육 요리경연대회 실시를 통한 매스컴 보도, 여성잡지 광고계재를 실시해 꾸준히 지속적으로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 사업의 재원은 전액 회원사들이 광고비(특별회비)로 부담하고 있으며 회원사 유관업체에서도 십시일반으로 회원사를 통해 소비재에 일정액을 자발적으로 부담해 약 4억원의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

후, USDA는 지금까지 실시되어 왔었던 HACCP의 실시 상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함께 발표했다. 이것은 식품 안전 검사국(FSIS) 직원 267인에 대한 인터뷰의 결과를 모아 종합한 것이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USDA는 직원에 대해 HACCP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많은 변화에 대응하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이나 지원등의 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고 HACCP의 실시는, 지금까지의 상황이 효과적이며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HACCP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약 3백개 공장의 검사 관리의 등급에 대한 특별 훈련 실시, 검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서비스센터의 개설, 대규모 공장에서의 HACCP의 실시에 관한 지원 및 업계에서의 질문에 회답하기 위한 핫 라인의 설치 등이 강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USDA, 2차 HACCP평가 보고

미 농무부(USDA)는 지난 8월, 98년 제2/4분기(4월1일~6월30일)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의 실시 상황에 대한 실시보고서 및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USDA는, 가금육 처리가공장에서의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96년 7월에 HACCP 시스템에 근거하는 최종 검사 규칙을 제정하고, 제 1 단계로서 98년 1월 이후, 종업원 5백인 이상의 대규모 식육 처리 가공장에 있어서, HACCP의 도입을 의무화 하였다.

USDA는 분기마다 HACCP의 규칙이나 강제 조치에 대한 실시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이 2회째 보고서가 된다.

발표된 실시 상황 보고서에 의하면 준수·적합율이 93%로 지난 1회때의 92%와 비교해 소폭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백개의 HACCP 실시 작업장에 대해 16,979 건(전회 16,102 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됐다. 또한, 아직도 전통적인 검사 시스템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나머지 6천2백개의 공장에 관하여는 부적합 건수는, 42,406 건(전회 43,765 건)으로 나타났다. 사소한 표시 오류로부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에 걸쳐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번 보고서에는, 부당 표시등의 상품 관리에 관한 정보도 기재되어 있고, 약 1천4백 톤의 제품 보류, 462통의 경고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14의 개인 또는 법인이 법정에 넘겨진 상태이다.

실시 상황 보고서가 공표된 2일

농림부, 축산물위생 검사기관 지정

농림부는 지난 10월 10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식품위생연구원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다.

각각 지정번호 1, 2호로 지정된 두 기관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제3항 관련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검토하며, 제12조 제4항 관련 축산물의 위탁 검사, 제15조 제2항 관련 수입축산물의 의뢰검사, 제19조 제1항·제2항 관련 수거축산물의 검사를 하게 된다.

하림, 2천만달러 외자유치

- IFC, 유상증자 전환사채 방식 투자 -

(주)하림이 IFC(국제금융공사)로부터 2천만달러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여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최대 육계계열화업체인 하림은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IBRD(세계은행) 산하 투자기관인 IFC측과 금년 3월부터 투자협상을 전개하여 지난 25일 "IFC, 하림 투자 계획"이 이사회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에 하림이 유치하는 2천만달러는 유상증자 6백만달러, 전환사채(CB) 1천4백만달러로서 전액 IFC에서 투자하며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 방식, 전환사채의 경우 10

년후 일시 상환 조건이나 하림이 요구하는 조기상환도 가능하도록 했다.

양측은 10월 중 서울에서 투자서명식을 갖고 잠입자본 전입과 함께 전환사채 발행이 있을 예정이다. 하림은 이번 IFC로부터의 투자유치를 성공함에 재무구조를 대폭 개선하고 나아가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기로 했다.

하림 김홍국 사장은 이와 관련 IMF 사태 이후 "국내 일부 식품농업관련기업에서 IFC측과 투자협상을 전개중에 있으나 투자가 확정된 기업은 하림이 처음"이라면서 특히 식품농업관련기업에서 세계유수의 기관으로부터 거액의 투

자유치를 성공시킨 것은 국내 육계산업의 앞날이 매우 밝다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사장은 또 "이번 외자유치 성공을 제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하림이 세계속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격적인 경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하림은 IMF 이후 야기된 내수부진을 수출을 통해 타개하기로 하고 지속적인 원가절감과 생산성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 노력과 함께 일본, 중동 등의 국가에 닭고기 수출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

국내 닭고기 시장의 25%를 점유하고 있는 하림은 매년 30% 이상의 고성장을 해온 업체로 올해 매출이 2천8백20억원으로 전년 2천3백29억원보다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닭고기 위생 및 계육가공 세미나 개최

- ASA 공동주최, 회원사 임직원 대상으로 -

본회는 미국대두협회(ASA)와 공동으로 지난 9월 29일(화) 계육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인 닭고기 위생과 계육가공에 대한 세미나를 회원사 및 관련업계 관계자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

닭고기 위생과 HACCP의 이해에 대해서는 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장 김기석 박사가 도계위생의 중요성, 위생적인 닭고기 생산과 도계장 위생검사, 수년간 국내 실무경험에 의한 도계장의 HACCP 도입 등에 대한 현장위주의 자료를 소개하며 관심을 촉구시켜 참가한 전국의 도계장 대표, 품질관리·생산관리 관계자들의 깊은 대화의 장이 되었다.

특히 HACCP에 대한 접근에서는 2000년 7월 시행에 앞서 업계에서 준비해야 할 일과 정부의 대

응 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과학적인 접근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어서 세계최대 닭고기 생산업체인 타이슨푸드사 선임 식품가공기술자 이상균 초청강사는 10여년간 미국 닭고기식품 제품개발, 가공, 품질관리 등의 경험을 살려 미국의 닭고기 가공산업 발전 추세, 닭고기 도계가공 부산물의 제품활용 방안, 미국 닭고기 가공산업의 HACCP 적용에 소개 등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국내 닭고기산업이 통닭유통에서 부분육, 2차 가공품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 닭고기 가공산업의 발전 예의 소개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으며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이

이어졌다.

미국 닭고기 가공관련회사 실무경험이 풍부한 이상균씨는 세미나와 별도로 본회 회원사 현장 방문을 통한 자문을 실시했다. TS해마로식품, 하림, 동우, 해표푸드서비스 등 현장을 방문해 시설과 작업과정을 둘러보고 현장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 함께 해결해 나가는 시간을 가졌다.

본회는 매년 선진국 닭고기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산업의 현장자문을 실시해 오던 중 이번에는 산업현장의 경험을 통해 상호관심사를 논하는 뜻있는 행사가 되어 앞으로 선진국 산업일선의 담당자를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당분간 지속할 예정으로 닭고기 마케팅전문가 초빙을 준비중이며 내년 초 미국의 닭고기 가공공장 견학을 통해 육가공산업, HACCP 실시현장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회원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